

“서커스 이면의 슬픔 그리고 싶었죠”

박송아 작가 '마지막 서커스' 등단 11년만에 첫 소설집 발간 장애를 가진 인물들 삶 통해 자신의 삶 살아가는 희망 그려

기성세대들은 어린 시절 가끔씩 동네에서 열리던 서커스를 보곤 했다. 농한기 때면 마을 공터나 논밭에 서커스 천막이 쳐지고, 마을 회관에는 공연 포스터가 붙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가 보았던 서커스는 추억과 함께 아련한 향수로 남아 있다.



박송아 작가

문학상 수상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는 작가에게는 '공백'이 아닌 '내공'을 기르는 훈련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고 개인 소설집 발간을 위해 노력했지만 출간 기회를 잡지 못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갔고 그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다. 박 작가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였다"며 "할머니는 제가 글을 쓰는 것을 누구보다 좋아하고 지지해주셨던 소중한 분이었고 고맙고 존경했던 분이였다"고 말했다.

박 작가는 학부 때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을 전공했다. 이후 문예창작학으로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는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상태다. 현재는 대학에서 강의를 병행하며 창작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작품집 표제작 '마지막 서커스'는 각기 다른 장애를 가진 세 명의 인물들과 버려진 그들을 '진짜' 아버지처럼 받아들여준 '가짜' 아버지가 겪는 일련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작가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세 명에게 서커스 공연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비난과 처벌을 받게 된 '가짜' 아버지는 다

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마련해준 것일지 모른다.

또 다른 작품 '배꼽의 기원'도 작가의 상상력과 직관력이 돋보이는 소설이다. 한편으로는 페이스스가 느껴지기도 한다.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배꼽이 간지러워지면서 웃음을 참을 수 없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버릇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결국에는 혼자 남게 돼요. 주인공이 스스로 죽음을 원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담은 이야기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들은 대부분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의 원인이 아버지인 경우가 많다. 아이들은 태어난 이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다. 절박한 분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잿빛의 우울함만 드러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노태훈 문학평론가는 추천사에서 "박송아의 세계가 절망으로만 점철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약자들이 자신이 더 불행하다고 악다구니를 쓰면서도, 구원을 외치면서 폭력과 죽음을 방조하고 자행하는 외중에도 다시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기 때문이다"고 평한다.

박 작가는 "앞으로 어떤 소설을 쓰고 싶냐는 물음에 "단순하게 읽히지 않는 글을 쓰고 싶다"고 했다. "깔차기 읽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몰려오고 오랫동안 여운이 남는 글이었으면"한다는 말에서 향후 작품의 방향이 가능해졌다.

그는 예전에는 소설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소원'으로 생각한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 소설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마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쁘고 감사할 것" 같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들려줄 말을 권했더니 "마지막 서커스"에 나오는 말을 인용했다.

"당신이 누구든, 우리가 누구든, 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생각하는 상관없다고. 다시 말해 살아가는 일은 수많은 부딪침과 마주하는 일이지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하루를 보낸 사람들이 부디 타인의 무례한 관점과 태도 속에서 자신의 삶과 살아가는 방식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화순의 가을 '우리 가락'으로 물들이다

11월까지 능주 목사골 국악 상설공연...무형문화재 보유자 공연 등



오는 15일 진행되는 전승자 주관 기획 행사 '답설'의 이전 공연 장면.

〈프랙탈 제공〉

화순군 능주면은 국악인들의 조직체인 '신청(神淸)'이 있던 곳으로 국가무형문화재를 10여명 이상 배출한 국악 산실이다. 능주면 역사문화관에서 능주 장날을 기점으로 국악상설공연이 펼쳐진다.

문화예술네트워크 프랙탈이 '능주 목사골 국악 상설공연'을 5일부터 11월까지 총 4회(오전 11시)에 걸쳐 화순군 능주면 역사문화관 특설무대에서 연다.

먼저 5일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윤진철(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의 소리를 감상할 수 있다. 전남대 국악학과를 졸업했으며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2023답설 판소리'를 주제로 판소리 공연을 선보이는데, 판소리 대목과 입체창, 남도민요 등이 올려 퍼진다.

또 월드뮤직그룹을 표방하는 루트머지도 무대

에 오르는데, '인연', '오버 더 아리랑 힐', '아리랑 놀이', '신나는 노래', '인당수' 등을 연주할 계획이다. 이어 10일에는 능주들소리보존회(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65호)와 향산 주소연 판소리 보존회의 무대를 만날 수 있다. 다음달 25일에는 보성군립국악단의 공연도 예정돼 있다.

대미를 장식하는 11월 5일에는 다양한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전남무형문화재 제6호인 화순완전농악보존회, 강산제심청가 보유자 김향순과 김병호류가야금산조 보유자 선영숙도 아름다운 우리 풍류를 들려준다.

또 전남무형문화재 제54호 우봉리들소리보존회의 공연도 레퍼토리에 있다. 화순군 초양면 우봉리에서 전해져 오는 공동체 문화예술이자 음력 7월 15일 백중날에 풍년을 기원하며 불렀던 노래다.

자세한 내용은 프랙탈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 공동육아나눔터·심리 치유 정보 공유

여성가족재단 '우리동네 아이돌봄 플랫폼' 오픈

광주 지역사회 돌봄공동체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주축이 되는 플랫폼이 런칭했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여성가족재단)은 광주시와 함께 4일 '우리동네아이돌봄 플랫폼(이하 플랫폼)'을 오픈했다. 지역의 인적·물적 돌봄자원과 특성을 반영해 부모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육아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조성된 플랫폼 공간이다.

'여성가족친화마을', '마을교육공동체', '공동육아나눔터', '자치구형 마을돌봄' 총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여성가족친화마을을 카테고리에는 작은 도서관 등 상호 육아에 도움을 주고받는 시설 정보

를 얻을 수 있다. 또 마을교육공동체는 복지관, 자치회 등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 밖 교실을 소개한다. 공동육아나눔터란 핵가족화를 보완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정보, 마을돌봄란 심리치유센터 등의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여성가족재단 김경례 대표이사는 "공적 돌봄체계가 갖고 있는 공백을 아이돌봄 플랫폼을 통해 채워 광주시민들의 육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은 주소(www.광주아이키움.kr/dolbom) 접속, 자세한 내용은 광주아이키움(062-222-1279)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손형섭 시인, 82세에 시조 시인 등단

82세에 시조 시인으로 등단한 노(老) 시인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손형섭(사진) 전 목포대학교 명예교수. 시인 겸 수필가로 활동해온 손 시인은 최근 시조 '겨울 나그네'가 제 167회 '월간문학' 신인작품상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작품은 '월간문학' 9월호에 게재됐다.

심사위원인 권혁모 시인은 심사평에서 "겨울나그네"는 차분한 감성에 더한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하고 있다. 여든 둘의 황혼 앞에서 시조의 눈발은 그집이 없는가 보다"며 "누군들 나이 들지 않으랴? 오직 멧돌어진 시조의 절창 외에는 예외가

없다"고 평했다.

손 시인은 당선 소감에서 "그간 나의 꿈과 고뇌와 믿음과 믿음의 통한 느낌을 시조에 담아내고 싶었다"며 "나의 인생 겨울을 맞은 삶의 편린을 '겨울 나그네'라는 시조로 썼다"고 밝혔다.

이어 "부족한 저의 글을 당선작으로 뽑아주신 심사위원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며 "더욱이 내 나이 여든두 살에 이르러 '월간문학'에 시조 등단이라는 기회를 줘서 더욱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시인은 2010년 목포대 지역개발학과 교수로 정년퇴임한 뒤 고(故) 문병란 시인의 서은문학연구



소에서 1년 동안 시 창작을 수강하며 창작의 길에 들어섰다.

화순 출신인 손 시인은 광주상고와 전남대 농업경제학과를 나와 전남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립목포대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 초청교수, 목포대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7년 '문학예술' 시 부문과 수필 부문 신인상으로 문단에 데뷔했다. 지금까지 시집 '별빛', '파도', '만주' 등을 펴냈다. 한국문학예술가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을 역임했고 광주시시인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동행재활요양병원

동행재활요양병원

DongHaeng Convalescent Hospital

“ 환자맞춤별 치료를 통하여 회복과 통증완화를 돕습니다. ”

일반요양 중풍재활 수술후재활

의학·한의학 협진
의학·한의학 협진을 통해 침치료, 부항, 침약 등의 한방 치료를 제공하여 회복과 증상완화를 돕습니다.

질화에 맞는 치료 제공
중추신경계 치료와 근골격계 추나 치료, 통증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기능회복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를 병원 1층에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작업프로그램, 사회적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 공유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신안동 2-3) 062) 720-2000